정경대학 "개·보수 공사, 여름방학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겠다"
관련회의 매달 1회 이상… 강의실 대여 5개 추가

정경대 낙후시설 논란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서울】 정경대학 측이 정경대학 학생회가 요구한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을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언론고시반 이전과 정경대학 공간대책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은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정경대학 노후공간과 낙후 기자재 관련 논의를 위해 마련된 면담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 자리에는 면담을 주재한 한균태 서울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해 강제상 정경대학장, 정경대학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경대학 학생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은 "정경대학은 빔 프로젝트 고장 등 때문에 수업 시간에 3번씩 조교를 부를 만큼 낙후돼있다"며 "무엇보다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인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공간개선 TFT가 마련한 5대 학생요구안 중 언론고시반 이전이 무산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예산을 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경대학 행정실 윤제학 실장은 "5대 학생요구안 중 낙후시설 개·보수와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은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해결할 것을 약속하겠다"면서도 "언론고시반 문제는 이전 장소가 확정돼있지 않아, 당장의 예산 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고시반의 면학분위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의 꿀방(학생회실) 만들기는 이번달 안으로 공간협의를 완료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경대학 공간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이날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학장, 행정실, 학생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매달 최소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대학본부도 포함된다. 정경대학 강제상 학장은 "학생대표와 함께 정경대학이 SPACE21사업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겠다. 매달 최소 1회 이상 논의 하겠다"며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되는 것들부터 고민하자"고 말했다.

한균태 부총장 역시 "정경대학이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학생수가 많고, 노후화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아직 단기대책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실 대여시스템 개선은 지난 1일부터 5개 강의실을 추가 대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정경대학 행정실에서 강의실 예약 현황표를 확인하고 당일에 서면으로 예약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지난 3월 정경대학 운영위원회와 공간개선TFT는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5가지 선정한 바 있다. 이 5대 요구안에는 ▲언론고시반 이전과 제2의 꿀방(학생회실) 만들기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 ▲강의실 대여시스템 개선 ▲정경대 공간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 있다. 이후 정경대학 학생회가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거듭 문제제기했고, 면담을 이어왔다.

"파격에 대한 반동, 시간이 흐른 뒤 제대로 평가할 것"

이현호 (홍익대 실내건축학)교수 / 문화복지시설 설계자

정문 인근에 건축 중인 문화복지시설(가칭)의 색과 디자인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지난 1일 대학주보 온라인을 통해 SPACE21사업 대표건축가이자 문화복지시설을 설계한 이현호 교수의 건축의도를 추가로 전달했지만, 여전히 색깔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반론이 계속됐다. 이에 지난 10일 이 교수를 다시 만났다. 그 역시도 "디자인에 대해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인 것에 대해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반응은 "'파격에 대한 반동'이라며,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건축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가장 문제제기가 많은 '색'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반대 여론은 대체로 기존의 건물들이 화강색, 회색, 흰색을 사용하는 반면, 문화복지시설은 원색을 사용해 통일성을 해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건물들이 자연환경과 어울리며 더욱 다채롭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왜 하필이면 노란색이냐는 질문에 이현호 교수는 "다른 색이면 어떨지 상상해보라"고 반문했다. "원래 붉은색 타일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의료원 건물인 까닭에 다른 색을 찾았다"며 "녹색을 사용하자니 주변 나무들에 동화돼버릴 것 같았고, 파란색은 공장건물처럼 보일 것 같아 노란색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란색은 재밌는 색이다. 봄에 보면 색이 튀어 돋보이지만, 여름의 푸른 나무들 사이에서는 그에 어울리고, 가을의 단풍에는 덜 돋보일 것이며, 겨울에는 튀지 않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색과 별개로 건축양식 역시 문제제기가 이어진다. 우선 통일성을 해친다는 이야기가 많다. '너무 튄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캠퍼스의 경우 고전적 언어를 사용한 건물로 '본관', '평화의 전당', '중앙도서관'이 존재했다. 여기에 SPACE21 사업 건설이 완료되면 고전적 문법의 건물은 총 6개로 그 밀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SPACE21 사업 전반을 살펴보면 고전적 건물이 많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는 "도시의 역사가 오래된 교토, 런던과 같은 도시는 한 번의 대규모 건설로 형성되지 않는다"며 "길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옛 건물과 신식 건물이 조화된다"고 말했다. 캠퍼스도 같은 맥락으로 교육의 공간으로 천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봐야하는 만큼, 고전적 건물과 미래지향적 건물이 조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다른 색으로 칠해진 문화복지시설을 상상하면 노란색이 가장 무난하며 적합한 색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늘에서 건축물을 내려다 봤을 때 두 개의 직사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다.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반박하며, 오히려 "공간 효율은 높다"는 입장이다. "단지 단조로울 수 있는 건축물의 '루프라인(Roof Line)'을 사선으로 구성해 재미를 더했다"고 덧붙였다. 두 개의 개별 건물 사이에는 각각의 테라스가 생긴다. 테라스에서는 '평화의 전당', '본관'등 학교 내부와 등용문 앞으로 펼쳐지는 학교 외부의 공간을 조망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이현호 교수는 "공간이 구성되면 학생들이 추억을 쌓을 아름다운 공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되는 문화복지시설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두 개의 직사각형이 마주보는 형상이 된다

▶1면에서 이어짐

이현호 교수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건축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구성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문화복지시설은 경희의료원 방문객과 우리학교 구성원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쓰일 예정이다. '문화복지시설' 건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암 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된다. 경희의료원 총무팀측은 "우리학교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화복지시설은 암 전문병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시설' 건축은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내부 시설 공사가 끝나는 5월 11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축 건물의 전체 공간 사용은 GS리테일이 15년 장기 임대 형식으로 계약을 마쳤으며 내부에는 식음료업체와 편의점, 북카페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면플라자 완공과 함께 정문에서 교시탑에 이르는 중앙로가 기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 정문 주변 차로 및 보행 동선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복지시설 옆 보행로가 완성되면 현재 '임시'로 쓰이고 있는 보행로가 확장된 차로로 사용된다.

외부에서 대학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현재와 같이 1차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학에서 외부로 향하는 진출로는 현재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 진출로는 정기권 소유 차량이 사용하며 현재의 마을버스 차선으로 우회하여 진출하게 된다. 기존 진출로는 정기권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에 지금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고 나가게 된다.

기존 진입차선 역시 현재의 차선폭에서 조금 넓어지면서 원활한 소통과 안전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문 인접도로의 동선과 차선이 변경되면서 출·퇴근 시간대의 병목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중 야간대학원 수업 종료 후 고질적으로 반복되던 정체 현상도 경희고등학교 방향 출입로의 24시간 개방 정책과 함께 그 정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2004~2007학년도 핵심교양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구)핵심교양과목의 이수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재학생(현 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중, 금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3. 면제기준 및 자격 (※기타 자세한 이수면제 기준은 첨부 :핵심교양 이수면제 기준표" 참조)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G-TELP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센터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나.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단계 :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4. 신청기간 : 2015. 06. 01(월) ~ 06. 12(금) 17:00까지

5.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6.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증빙서류 원본

7.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5-1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공학인증(ABEEK) 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 바람. (☎. 031-201-3401~5)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외국어강좌 안내

- 접수기간 :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5. 04. 06.(월) ~ 04. 21(화)
  - 추가 접수기간 : 04. 27(월) ~ 05. 08(금)
- Level Test
  - 영어회화 : 04. 22(수), 24(금)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4. 24(금) 17:15
- 강의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7:45 – 08:45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18:00	프랑스어초급1	JLPTN3	프랑스어초급1	프랑스어초급1	JLPTN3
18:30	스페인어초급1	HSK4급	스페인어초급1	스페인어초급2	HSK4급
19:20	애니메이션과함께하는일본어	스페인어초급2 / 베트남어초급 / Academic Writing	영어 / 중국어	애니메이션과함께하는일본어	베트남어초급 / Academic Writing
19:30	프랑스어초급2	JLPTN2	프랑스어초급2	프랑스어초급2	JLPTN2
19:50	스페인어중급	HSK3급	스페인어중급	영어 / 중국어	HSK3급
20:00	영어 / 중국어	Ted Talk Book Club			
20:50					

Tel. 02) 961-0081~2 http://www.iie.ac.kr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제6회 경희가족 바둑축제 안내

동문, 교직원,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급수별 시상하므로 낮은 급수도 적극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5월 9일(토)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1층
- 참가비 : 1만원(점심식사, 참가기념품 제공)
- 시상 : 우승, 준우승, 3위(상장 및 부상, 재학생은 장학금 1인당 50만원 내지 100만원 수여)
- 참석대상 : 경희대학교 동문 및 가족, 경희대학교 교직원, 경희의료원 직원 경희대학교, 남녀 중·고 경희초등학교 재학생(참가비 무료)
- 대회방법 : 조별 변형스위스리그, 총호선, 덤6집반(1대국의 사용시간은 1시간)
- 주관 : 경희대학교총동문회(www.khua.or.kr)
- 접수 : 총동문회 사무처 전화 02-744-8854~6 팩스 02-744-0067/ 이메일 khua2001@hanmail.net

※바둑축제에 참가하시고 모교의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시기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총동문회